제19편 – 제3신앙촌시대〈제6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1회)

제19편
제3신앙촌 시대(제6부)
一.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 말중운
1) 부도가 난 신앙촌 그룹
2) 강제로 해산시키는 영모님
3) 영모님은 영적 아들 구세주를 위해 희생하셨다

一.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오라고 불러 놓고 축출하시는 진인의 용법

2) 강제로 해산시키는 영모님

영모님은 전 교인들에게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면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독려하시던 분이다. 전도를 좀 게을리하면 불호령을 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서울 중앙 전도관들은 영모님이 순회하시는 일요일마다 예배 참석한 수를 확인하여 영모님께 보고하게 하셨는데 그 보고 내용이 타 제단보다 수가 적게 나오면 정말 야단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관장들은 일요일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들여 수를 불리려고 있는힘을 다하였다.

그런데 1981년초부터 다들 직장 구해 나가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면서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관으로 끌어들이던 영모님이 하루 아침에 다들 나가라고 축출을 하시는 것이다. 당시의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태도를 전연 이해하지 못하고 영모님을 오해하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격암유록에는 영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450년 전에 예언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니 영모님의 역사는 하늘의 뜻 속에서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즉 "오라고 불러놓고 다시 축출하여 쫓아버리시는 진인의 용법이라"는 내용이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모님의 당시 말씀을 찾아보면서 전도관과 신앙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쫓아내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전도관 오래 해도 소용없다. 손 떼고 나가는 것이 낫다. 이 바탕을 없애고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이 조직 가지고는 앞으로 5만 년이 걸려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차라리 하나 하나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1981. 7. 4. 축복일)"

"이 바탕을 없애고 차라리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다. 참으로 의미 심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영모님이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구세주가 새로 완성의 역사를 하는 곳을 가려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세주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다. "이 조직을 가지고는 앞으로 5만년이 걸려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조직인 신앙촌 전도관 조직은 이미 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5만년을 애써봐야 헛수고만 하게 되는 곳이라는 말씀이다. "차라리 하나 하나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세주 나타나신 곳에 승리제단을 세웠으니 새로 시작하는 곳에 가라는 말씀이다. "전도관 오래 해도 소용없다. 손 떼고 나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말씀은 구세주 찾는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고, 빨리 전도관에서 손 떼고 구세주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다.

노고산 상의 오만제단

"전도사 오래 해도 소용없다. 손 떼고 나가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 바탕을 없애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키우면 되는 것이다(1981. 12. 2. 축복일)"

위 첫번째 말씀에는 "전도관 오래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셨는데 뒤의 말씀에는 "전도사 오래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셨다. 첫번째 말씀은 전도관에 나오는 전 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 뒤의 "전도사 오래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교역자 관장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역시 "이 바탕을 없애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다. 전도관의 사명은 끝이 났다는 말씀이고 또 새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은 구세주 출현하여 완성의 역사를 새로 하고 계신 그 곳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키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구세주 계신 곳에서 의인을 하나씩 키우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뭉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1981. 1. 24.)"

"온 세상 마귀가 기장에 집결했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 속에 최고의 마귀 세력이 있다. 이 마귀 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82. 3. 15.)"

"생수 마시고 지키지 못하여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전도사들은 재기 불능이다(1982. 7. 4.)"

그러나 급하게 해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신앙촌 전도관 식구들이 다들 높은 수준의 생수를 마시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모님이 유일한 이긴자라고 생각하여 그 영모님을 꺾기 위하여 온 세상의 마귀들이 다 기장신앙촌에 집결하였는데 그 마귀들이 높은 수준의 은혜로 된 생수를 마신 전도관 신앙촌 교인들에게 다 들어갔던 것이다. 높은 수준의 생수를 마신 교인들을 점령한 정도의 마귀면 굉장히 쎈 마귀들이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서 영모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사람 속에 최고 마귀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다. 겉으로는 다들 영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열심쟁이 신도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마귀 자식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신앙촌 교인들 통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죄의 세력을 씻기 위해 오염을 감당하시느라 밤새도록 피를 토해내면서 싸웠으나 영모님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마귀 세력들이었던 것이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신앙촌 전도관 교인들이 영모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뭉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마귀 세력들을 빨리 해산시켜 축출해야 하는 기막힌 영모님의 영적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모님께서 해산을 시키시는 일을 서두르신 것은 뭉쳐진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절박함도 있었다. 교인들이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영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인들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세력들이지만 영모님을 통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생명 걸고 따랐던 교인들이니 지금이라도 빨리 이곳에서 내보내어야 그들이 구세주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들 직장을 구해 나가는 것이 낫다(1982. 3. 10.)"

영모님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전도관과 신앙촌이었지만 당신의 손으로 허물어야 하는 기막힌 영의 사정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모님을 따랐던 무수한 사람들이 영모님을 실패자라고 규탄했지만 그들은 영모님의 영적인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이라고 하여 450년전에 이미 진인이 출현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을 따르는 전 교인들은 구원의 길은 이 곳밖에 없다는 영모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연 다 나가라고 강권을 하시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교인들을 끌어안고 같이 고생하면서 영생의 구원을 이루자고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격암유록 新 해설
제70회

금구(金鳩금비둘기) 옥토(玉兎옥토끼)가 서로 합해진 정도령을 만나야 죽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니라

救援枋舟 구원방주놉히떳네
風浪波濤凶凶 풍랑파도흉흉하나
山岳波濤 산악파도두려마라
神幕別乾坤 신막별건곤
海印造化 해인조화낫타난다

精覺歌(二) 정각가

我方東道呪文者 아방동도주문자
無文道通主唱 무문도통주창
生死之理不覺 생사지리불각
不知海冤無用 부지해원무용
道道教教獨主張 도도교교독주장
信仰革命不知 신앙혁명부지
何不覺而亂世生하불각이란세생
天降大道此時代 천강대도차시대
從道合一解冤知 종도합일해원지

우리나라에서 동학의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주문(呪文)을 외우는 자들이 무문도통(無文道通=글을 몰라도 도통함)을 부르짖지만 생사(生死)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해원(解冤=원통한 마음을 품)의 이치를 알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모든 도(道)와 종교가 오직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나 신앙혁명을 모르고 생사의 이치와 해원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난세(亂世)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강림하셔서 무극대도(불사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모든 도(道)와 종교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천하의 크나큰 원통(寃痛)함과 원한(怨恨)을 풀게 되느니라.

天藏地祕十勝地 천장지비십승지
出死入生弓乙村 출사입생궁을촌
種桃仙境紫霞島 종도선경자하도
日日硏究今不覺 일일연구금불각

欲知弓弓乙乙處 욕지궁궁을을처
只在金鳩木兎邊 지재금구목토변
庚辛金鳩四九理 경신금구사구리
甲乙木兎三八理 갑을목토삼팔리
一勝一敗縱橫 일승일패종횡
四九之間十勝處 사구지간십승처
欲知金鳩木兎理 욕지금구목토리
世謠流行心覺 세요유행심각
乙矢口何理節矢口何意
을시구하리절시구하의
氣和者肇乙矢口 기화자조을시구
日中有鳥月中玉獸 일중유조월중옥수
何獸 鳩兎相合眞人 하수 구토상합진인
世人苦待鄭道令 세인고대정도령
何意事永不覺 하의사영불각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지(十勝地)는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죽게 되는 궁을촌(弓乙村)이요 영생의 씨앗을 심는 선경(仙境)으로 자하도(紫霞島)라 하느니라. 날마다 궁을촌(弓乙村)을 깊이 파고 들어 조사해 왔으나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궁을십승처(弓乙十勝處)를 알고자 한다면 목토(木兎=목운)가 변하여 된 금 비둘기(금구金鳩=금운)가 궁을 십승처(弓乙十勝處)이니라. 금 비둘기는 서방경신 사구금(西方庚辛四九金)의 이치 즉 금운(81궁 정도령)으로 오시고 목토(木兎)는 동방갑을삼팔목(東方甲乙三八木)의 이치 즉 목운(72궁 정도령)으로 오시느니라. 목운과 금운이 합하여(십=十) 81궁 금운(四九之間)속에 십승처(十勝處)가 이루어지느니라.

금구목토(金鳩木兎=금 비둘기 나무토끼)의 이치를 알고 싶으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을시구(乙矢口) 절시구(節矢口) 지화자 조을시구!' 가 어떤 이치이며 무슨 뜻인가? 을(乙)은 궁궁을을(弓弓乙乙)이며 시구(矢口)는 지(知)이니 정도령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요 절시구(節矢口)는 정도령이 오시면 죽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개벽을 시켜 더 이상 추운 일기가 없어지고 화창한 춘일(春日)만 있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라는 뜻이다. 상극(相剋)의 세상, 원(寃)과 한(恨)으로 점철된 '죽는 세상'은 끝이 나고 상생의 세상, 따뜻한 봄날과 같은 사랑(대자대비大慈大悲)이 넘치는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온화(溫和)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분(정도령)이 오셔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니 을시구 절시구 지화자 조을시구! 좋아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다.

해 속에는 새가 있고 달 속에는 옥수(玉獸)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가? 바로 금 구조(金鳩鳥=금운 81궁 정도령)와 옥토끼(玉兎=목운 72궁 정도령)라 금구(金鳩)와 옥토(玉兎)가 서로 합해진 진인이 나오는데 즉 동서(東西)가 합하고 금목(金木)이 합하고 일월(日月)이 합해진 진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분이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던 정도령이니라. 일월이 합하면 밝을 명(明) 자가 되는데 명(明)은 밝다는 뜻이요 곧 빛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일로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를 깨닫지 못했던가? 마지막에 오시는 81궁 정도령(금운金運)은 72궁 정도령(목운 木運)이 합해진 81궁이다. 이는 강증산 선생이 천지공사가 끝난 후 당신 뒤에 두 사람이 더 온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마지막에 오는 분을 대두목이라 하였고 대두목은 왕중의 왕이란 말이다. 왕중의 왕(대두목)은 구세주요 구세주는 메시아요 메시아는 미륵불이며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吉地歌 길지가

四三雙空近來 사삼쌍공근래로다
一九六八當致 일구륙팔당치헌네
苦海衆生 고해중생다오너라

진사성인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도다.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는 묵은 하늘이 끝나고 사람 살리는 공사만 하는 새 하늘의 주인공이 간방(艮方)인 남조선에 오셨도다. 고해중생(苦海衆生) 다 오너라. 구원방주(救援枋舟) 높이 떴네. 풍랑파도흉흉(風浪波濤凶凶)하나 산악파도(山岳波濤)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장막은 별천지(別天地)이니 해인의 조화가 나타나리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